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총평

###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시/시조A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시/시조A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29(월) 10:00~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은 기존의 1개 트랙을 2개 트랙으로 세분화하는 개편을 했고 따라서 지원심의 방식에도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지속해 오던 '발간지원' 사업에 변화를 주었다. 올해 아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사업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미발표 작품 7편을 1차 심사하고, 이어 보완 자료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년 내 출간 가능한 건에 대해 지원하였다면, 이번부터는 이미 올해 내 출간이 예정되어 집필을 완료한 시집 한 권 분량의 원고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절차는 간소화하고, 무엇보다 한 시인의 시 세계에 대한 보다 밀도 높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 작품의 문학적 수준,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순으로 심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 심사를 진행했다. 시/시조A 분과는 해당 장르에 응모된 총 건수의 절반인 시 138건, 시조 29건의 작품집 분량의 원고를 배정받아 약 한 달간 심사위원 각자가 사전 전수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심의 회의를 통해 시 20건, 시조 4건을 2차 심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심사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심사 기준이 되는 작품의 문학적 수준이나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뛰어난 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큰 틀에서 심사자 모두가 같다. 다만 작품집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읽고 판단하는 세부 장단점에 대해서는 심사자 사이에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전 검토에 더욱 충실하고자 했다. 다행히 세 명 심사자의 개별 원고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및 배점 결과는 거의 편차 없이 일치했다. 이는 개별 원고의 세부 감상 및 장단점에 대해서도 심사자들이 비교적 비슷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시 분야의 경우 선정 작품 20건의 평가 편차가 매우 적었고 시조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사 결과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지만, 회의를 통해 개별 원고에 대한 생각들을 교환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덧붙여 말하자면,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매우 근소한 점수 차로 2차 대상자에 아쉽게 포함되지 못한 원고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심사를 하며, 응모된 작품들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저마다 좋은 시를 쓰고자 분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배정된 응모작들의 경향이라면 환상성이 유독 짙거나 비현실적 시공간이 배경이 되는 작품보다는 대체적으로 최근의 현실적인 일상 공간을 저마다의 무늬로 수놓은 작품들이 많았다. 흔히 시적 실험성이 전자의 시편에서 주로 발견되는 덕목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사실 시의 실험성은 평범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새롭고 인상적인 시적 인식(발견)을 기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더하여 2차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작품들은 저마다의 다채롭고 창의적이라 할만한 발화법을 이미 체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사자들은 시조 장르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작품 세계를 읽고 감상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자신만의 풍미를 우려낼 수 있는 나름의 레시피를 선보이듯 잘 차려진 작품들이 있었다면, 미선정된 작품 중에는 정확히 그 반대되는 이유의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말한 여러 이유이자 한계로 문학의 심사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엔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는 충분히 성과가 있을 분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모쪼록 이번 심사가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금이나마 우리 문학의 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시조A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시/시조B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시/시조B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29(월) 14:0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주관성이 강한 문학 작품을 평가하고 선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구체성, 엄정성은 강화하면서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가들에게 마땅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창작 활동 지원이 우리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일이라는 데 기쁨을 느끼는 한편, 늘 그렇듯 더 많은 작가를 지원할 수 없음에 안타깝다. 심의위원들이 가진 공통의 감정은 역시 시인들에 대한 송구함 그리고 감사함이다.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한 심의가 작가와 독자, 평단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이길 기대해본다.

시/시조 B분과 심의위원들은 약 4주간 심의자료공유시스템에 업로드된 시 137건, 시조 29건 등 총 166건의 응모작을 각자 열람한 후 온라인 채점을 실시했다. 개별 시편들의 작품성과 작품집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 작품 확산 노력'이라는 기준을 얼마만큼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는 동안 폭염과 폭우가 지나가고 하늘이 높아졌다. 가을의 마중물로 선선한 비가 내린 8월 29일, 취합된 온라인 채점 결과를 두고 대면 심의를 거쳐 시 20건, 시조 4건 등 총 24건을 1차 선정했다. 온라인 채점에서 이미 상당한 의견일치를 이룬 지라 대면심의를 수월했다. 심의위원들의 이심전심보다 선정작들이 낭중지추인 덕분이다.

지원신청자의 이름과 경력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하는 만큼 심의위원들은 '이름'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경계했다. 경력이 오래되었기에 고루할 것이라거나 신진이기에 성글고 난해할 것이라는 식의 편견은 애초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름이 쓰여 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이름을 지우는, 이미 있던 것을 답습하거나 서로 엇비슷해 누구의 작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작품들을 우선 걸러내려 했지만, 그런 작품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166건의 응모작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어떤 단단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눈을 기울여 독창성, 새로움, 언어의 제련, 서정성, 시의성 등을 두루 살폈다. 심의 후 선정 결과를 보고 놀란 것은 경력, 연령, 성별, 개성이 저마다 다른, 다양한 문학 세계가 채점 표에 포진되었기 때문이다. 이견 없이, 진통 없이 심의를 마칠 수 있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모두 탁월한 언어 감각, 다채로운 소재, 낯설면서 선연한 이미지, 유려한 리듬, 사유의 깊이를 갖추고 있었다. 시의 경우 상상력을 시 안에서 풍요롭게 번지게 하는 은유의 힘, 섬세한 언어를 시적 음악으로 흐르게 하는 음악성, 언어와 언어의 예기치 못한 충돌과 이미지의 돌연한 비약에서 발생하는 매혹적인 감수성, 세계와 '나'가 합일하는 순간의 뜨거운 서정, 세계와 '나'가 불화하는 불가능성 너머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언어의 실험정신 등을 지닌 작품들이 주로 돋보였다. 시조의 경우 창조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 언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은 가운데,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채로운 실험을 통해 시조가 나아갈 최대치의 가능성을 열어 보려는 작품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선정된 작가들,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 모두 우리 문학의 큰 자산이다. 독창적이고 확고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이들은 넓이보다는 높이 혹은 깊이를 향해 솟아오르거나 천착해 들어가는 시인들이다. 비슷하게 키를 맞춰 사이좋은 친구들이 되기보다 개별자의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인들이 많음에 감사하다. 닿을 수 없는 높이를 향해 오르려는 무모한 영혼, 문학이라는 척박한 골짜기에 스스로를 윤페시킨 고독한 영혼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구름 계단이 되길, 환한 빛줄기가 되길 소망한다.

시/시조B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소설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소설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29(월) 16: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간지원을 하는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 소설 분과 신청 건수는 중단편 58건, 장편 42건이었다. 심의위원들은 검토작들에 대한 교차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전전수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면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에서는 신청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를 주된 심의기준으로 삼았다.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지, 제출된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의하였고, 더불어 문학적 성취와 창작 역량의 발전 가능성, 독자나 다른 작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살피며 논의한 결과 1차 심의에서는 중단편 18건, 장편 12건을 선정하였다.

올해 중단편 응모작들은 개인적 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소재 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보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기후 변화를 다룬 소설이라든지, 직장 생활의 애환을 그리면서 여성들의 우정으로 새로운 전복을 꿈꾸는 이야기, 개인적 서사를 역사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이야기들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한 삶의 현상이 있는가 하면 지역성을 살린 사투리의 입말이 돋보이는 소설들도 있었다. 의외로 웹소설이나 SF소설의 새로운 도전은 보이지 않았으나, 소재는 다양해진 반면 전반적으로 문장의 호흡이 짧고 서사를 밀어붙이는 작가만의 문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장편 응모작들은 전문직 여성의 삶, 웰다잉 시대의 새로운 삶의 모습,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서사,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파고드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소재는 다양한 반면 단편이 아닌 장편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여성 화자의 다양한 모습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편 부분에서는 시대의 권력 다툼을 다루는 전형적인 역사소설이 많았다. 이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는 장편소설에서 강점이기보다는 아쉬운 점으로 작용한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이야기의 소재를 찾는 것에서부터 작가만의 개성과 시각이 있는데 '어디서 소설이 탄생하는가' 하는 고민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이야기를 꿈꾸는 소설가들의 분투에 경의를 표한다.

소설 분야 1차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동시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동시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30(화) 14:0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우수작가의 작품을 선정하고, 발간을 지원하는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사업의 동시 부문 1차 예심이 진행되었다.

두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은 작가의 문학적 수준, 문학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 작품선정 후 작품집 출간이 미칠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논의하였다.

주변의 하찮고 작은 것들을, 또는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기만의 눈으로 재발견하여 시적으로 낯설게 보여주며 상상력을 끌어낸 작품, 시가 주는 진정성과 울림의 폭이 굉장히 깊고 넓은 작품, 뛰어난 시적 비유로 참신성과 재미를 곁들여 보여준 작품, 아이의 일상과 생각을 억지스럽지 않게 동심의 눈으로 오롯이 담아낸 작품 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사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기가 시적 장치 없이 날것으로 드러났거나, 산문화되어 시가 주는 함축과 간결미가 떨어지거나, 메시지가 불분명하거나, 응모한 작품집의 작품 수준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했거나 하는 작품들이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작품집의 전체 작품 수준이 높고 낮음 없이 일정하게 고르고 우수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드러내지 않고, 작품 속의 화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하기를 시적 장치를 통해 자유자재로 참신하게 보여주는 강점을 드러냈다.

새로운 작품들로 동시의 물길을 더욱더 넓혀 준 지원 신청에 참여했던 모든 시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원을 보낸다.

동시 분야 1차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동화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동화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30(화) 16: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에 응모한 작품은 장편(동화, 청소년소설을 포함) 78편, 중단편(동화, 청소년소설 포함) 20편, 총 98편이었다. 1차 심의는 7월 29일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8월 3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 모여 대면한 가운데 열린 토론을 하여 최종 선정 작품의 2배수로 장편 20편, 중단편 6편을 가려냈다. 심의 기준은 집필 작품의 문학적인 수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등이 기준이었다.

중단편은 아이들 생활과 생태, 부동산, 죽음, 위인, 그림책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일부 저학년 동화의 경우에는 예술적인 웃을 입지 못한 듯한 아쉬움이 있었다. 반면 고학년 작품은 철학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많아서 읽는 내내 즐거웠다.

장편은 역사물이 가장 많았고, 생활 이야기와 판타지 작품이 뒤를 이었다. 역사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최근 어린이 청소년 출판의 뚜렷한 경향이기도 하다. 일반 문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역사적인 소재를 활발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어린이 청소년 문학은 그 걸음마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야 역사적인 소재를 자유롭게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생활 동화에서는 톡톡 튀는 문체와 함께 명랑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작품들이 강세를 보였다. 요즘 아이들이 책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작가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의위원들은, 그런 작품들을 토론하면서 좀 더 차별성이 있고, 서사에 대한 완성도가 있는 작품, 즉 미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선별하였다.

당연히 아쉬움도 있었다. 흥미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탄탄한 서사로 엮어내지 못하거나, 너무 재미있는 작품을 써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작가만의 개성적인 색깔을 이어가지 못하고 무난하게 타협하는 경우가 그러했다. 특히 역사물의 경우에는 쓰고자 하는 소재가 어린 주인공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책으로 나왔을 경우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어린이 문학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내적인 갈등을 다루지만, 돌맹이부터 흙, 공기, 물, 씨앗, 우주, 저승, 귀신, 시간 등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성찰하는 무한한 예술이다. 그런 가치에 고민하고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 다시금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늘 제기되는 것이지만, 청소년 문학의 경우에는 어린이 문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독자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아울러 1차로 선정된 모든 작품들이 푸르른 나무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오래오래 살아가는 생명체로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동화 분야 1차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수필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수필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31(수) 10:00~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아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공모사업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작가의 집필 및 작품집 발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작가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집필이 완료된 책 한 권 분량의 작품 원고를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책 한 권 분량의 작품 원고는 적지 않은 분량이다. 많은 작가가 공모에 신청하였다. 수필 분야에 총 112건의 신청 접수가 있었다. 발표, 미발표 작품을 포함해 책 한 권 분량의 작품 원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꾸준한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역량이 필요하다.

1차 심의에서는 32건을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심사 위원들이 한 달 조금 넘게 일일이 신청 접수된 112건의 작품 원고를 다 읽었다. 치밀하게 검토하여 채점하였다. 이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탁월한 작품을 찾아내는 기쁨도 많았다.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1차 심의 회의를 열어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별 채점 결과에 따라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높은 점수 순위대로 32건을 선정하였다. 심의는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기획의 독창성, 형식의 참신성, 주제 의식의 전달 수준,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참신한 소재 개발,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과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 독자와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쳐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심의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은 낯설게 하기, 자기만의 개성 있는 시각과 표현이 뛰어났다. 하나의 주제로 책 한 권의 분량의 원고를 채운 작가들이 있다. 국내외 담장을 다룬 작품, 국악 전문수필, 다큐멘터리 수필, 인문학 수필, 풀, 꽃, 나무, 숲에 관한 수필과 짧은 수필의 시도는 아주 새로웠다. 2차 심의 대상에 선정된 작품들은 문장의 밀도, 심미안, 향토적 언어 구사, 빛나는 은유, 서정과 사유, 절제된 감성, 담백하고 차분한 문체,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입부부터 물입을 끌어내서 마무리까지 유려하게 연결해 나가면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수필, 수필에 천착하여 작가의 삶과 철학을 조화롭게 표현한 수필, 참신한 소재, 해석, 표현이 돋보인 작품들이 많았다. 숙성되고 형상화와 의미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탁월한 작품들이었다.

아깝게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은 전체적인 작품 원고가 하나의 수필 작품집으로서 완결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즉 숙성된 수필 작품을 쓰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게 하고, 단순 일기 같은 작품이 있어 문학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심의위원들은 작품 한편 한편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2차 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다음 기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2차 심의 대상에 선정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수필 분야 1차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평론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평론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31(수) 13:00~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아르고문학창작기금은 우수 작가의 집필 및 발간 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분야와 문학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에 응모한 평론집은 총 13편이었다. 작년보다 편수가 줄었고, 이런 경향은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응모작 편수는 적었지만 지원한 평론은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었다. 페미니즘, 생태주의 문학, 문단의 표절, 시와 소설 평론, 아동문학평론, 현대시조 평론, 문학과 미술을 융합시킨 평론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작가론과 작품론 형태의 평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심 심사위원들은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 출간 후 문학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순으로 심사 가중치를 부여하여 엄정하게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들이 서울과 지방, 유명 문예지나 출판사와의 관련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노력했다. 평론이 당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미흡하다면 그 존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10년대 이후 문학에 대한 생생한 현장평론이 적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꼼꼼한 텍스트 읽기는 필요하다. 문제는 숲에 대한 성찰이 미흡한 상황에서 나무만 드러내는 형식주의적 독법은 독자의 기대 지평을 충족시켜주는 데에 한계점을 갖는다. 시대, 문학(또는 영화) 전반, 개별 텍스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선과 치밀한 텍스트 읽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론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 학술지에 게재된 글이거나 논문 형식을 취하는 글은 자유분방한 유연성의 평론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청탁 위주로 쓴 글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으면 통일성이 미흡한 평론집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필요하다면 청탁과 무관한 글을 써서 단행본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평론 형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형태의 평론이 대부분이었기에 전위적인 실험성과 참신한 감각을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의 평론을 찾기 어려웠다.

기성 문인들이 경연하는 심사에 있어 작품 수준이 확보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한 것은 차별성이다. 맥락보다 꼼꼼한 텍스트 읽기만으로 평론집을 구성해서는 차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설사 미흡하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의식과 개성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합시키고, 당대와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차별성을 획득해야 한다. 아쉽게도 도발적인 주제나 문제 설정을 통해 당대의 문학판, 영화판, 시대와 소통하려는 차별성 있는 글들을 찾기 어려웠으나, 본심에 오른 4편의 응모작들은 차별성 측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문학과 타 장르를 함께 언급하는 등 융합적 글쓰기는 개성적인 주제 설정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평론은 작가와 독자 사이를 매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문학평론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독자 중심의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통성이 뛰어난 응모작들을 우대했다. 어린이, 성인, 전문 독자를 두루 아우르는 응모작은 소통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예심 심사위원들은 우수한 작품을 꼭 선발하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심사에 응했다. 심사위원의 세계관과 취향이 다르기에 본심에 올릴 응모작을 뽑는 데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본심에 올릴 4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응모작의 편수가 적었고 본심에 올릴 우수작도 많지 않았다. 작품 수준의 편차가 심했기에 본심 선정작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응모작 편수와 우수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재 침체된 평론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내년에는 응모작 편수도 늘고 우수작도 많이 제출되어 심사위원들의 격론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평론 분야 1차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 지원심의 희곡 분야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간지원) 1차심의 희곡 분과
- 회의일시 : 2022년 8월 31(수) 15: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의 1차 심의는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전검토 및 온라인 채점으로 이루어졌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지원의 취지는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및 작품집 발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작가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50%), 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30%), 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20%)을 심사기준으로 하였다. 희곡분야는 8월 31일 심의위원의 온라인 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대면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4건을 위하여 그 2배수인 8편을 선정하였다. 희곡 수 편이 한 권에 실렸으므로 매일 한 명의 작가를 만나고, 한 작가의 서너편 이상의 연극 보기를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한 셈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극은 특히 많은 치명상을 입었으나 희곡작가들의 작품은 더욱 깊어진 생각, 새로운 시각,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극적 암시, 우리 연극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였다. 작가가 연극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바로 단절된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개인의 이해, 우리 삶의 진정성에 대한 사랑의 시선이자 회복약 같은 것이었다. 연극적 암시와 풍자, 작가의 날카로운 발화도 즐겁게 읽었다. 동시에 이 희곡집이 독자가 함께 공감하고 또한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지 재고하며 엇치락뒤치락 작품을 읽기를 거듭했다. 연극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가야 할 길을 무대 위에 그려낸 작가들의 노력에 박수를 치며 읽었다.

희곡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 죽은 자, 소외된 그늘에서 속삭이는 존재이다. 그들의 개성과 역량이 즐거운 놀이가 되어 세상에 나와 어우러지기 바라며 쏟은 땀방울에 존경을 표한다. 선정되지 않은 작품은 새롭게 발전할 기회가 되고 더욱 놀라운 작품으로 만나게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아테네극단도 우승을 놓고 경연을 벌였다지만 작가의 눈물과 한숨과 설레임이 익어 만들어진 희곡집에 어찌 점수를 매기고 있는가 하는 스트레스도 없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른 심사위원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읽은 희곡에서 같은 감동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신기하고 반가웠다. 좀 더 마음이 가는 작가가 서로 다르기도 하였지만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의견을 나누고 1차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심의하는 동안 수준 높은 작품과 만나 참으로 행복했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문학장르인 연극은 희곡과 함께 발전해왔다. 살아 남아서 인류 최초의 예술과 만나는 황홀경을 선사해주리라 꿈꿔본다. 한국연극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 연극을 사랑하는 관객과 희곡을 읽는 기쁨을 아는 독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같은 희곡작가와 그의 열매들인 희곡집이 소중한 이유이다.

희곡 분야 1차 심의위원 일동